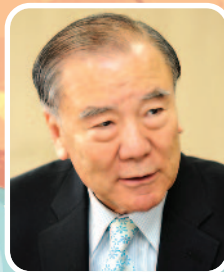


충청남도 문화정책, 백호의 기세로 달려나갈 때

변평섭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올해는 경인년, 호랑이의 해이다. 특히 60년에 한 번 온다는 백호랑이의 해인데, 흰 호랑이의 해에는 권력운과 경제운이 따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굵직한 문화·관광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주목된다.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3대 사업이 있으니, 바로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대충청방문의 해’,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가 그것이다.

‘2010 세계대백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다. 240억원이라는 대백제전의 투입 예산은 축제행사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이다. 그만큼 대백제전에 거는 충남도민들의 기대가 각별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옛 백제의 꿈과 문화를 되살린다’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26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공주와 부여일원에서 90여 개의 프로그램 선보일 예정이며, 백제와 교류가 빈번했던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역사도시연맹에 소속된 20여 개 도시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리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역사재현단지의 준공과 함께 롯데 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에 맞추어 개막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는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3개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등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광주·전남, 2009년 인천에 이어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오서유! 즐겨유! 대충청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사업은 단순한 1회성 사업이 아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관광자원, 특히 기존 지역축제들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의 대백제전, 대전의 열기구 축제, 충북의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연계시키는 상품개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는 지역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충청권 문화관광사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도 본격적인 막이 오를 예정이다. 충남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술조사와 전시를 통한 연구·보존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미 기초 작업에 착수하여 충남의 5개 민속주제 연구와 2개 민속마을(부여군 은산면 은산1리 농촌마을과 서천군 서면 월하성리 어촌마을)에 대한 연구는 마무리 단계이며, 도내 중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도 착수되었고, 충남의 민속을 주제로 한 민속상품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반인들의 충남민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책자 발간과 백제관련 설화집 발간 등도 예정되어 있다. 민속축제 한마당, 보부상 유물 특별전시회, 1박 2일 민속마을체험, 민속학자대회 등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4월 10일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 때의 선포식을 기하여 본격적인 막이 오르며, 이를 위해 암·숫줄이 결합된 모습을 형상화한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엠블렘도 확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충남 민속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2010년은 충청남도 문화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충남도 문화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충남의 미래와 직결된 각종 현안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충남으로서는 세종시 문제와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이 목전의 현안과제이다. 이미 착수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이미 착공되었다고는 하나 시작된 것은 하천 자체에 대한 정비사업일 뿐, 막상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변에 대한 사업은 아직 발걸음도 떼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문화·관광사업은 자칫 뒷전에 밀리기 쉽다.

그러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관광사업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춘 자원을 발굴하는 '문화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이후를 대비하여야 한다. 충청도의 역사문화전통의 색깔을 입혀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백제문화가 흐르는 금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니, 또한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충남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요한 설득이 있어야 할 듯하다. 국가의 추진 사업만으로는 항상 어딘가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도청신도시에는 충남의 문화적 차별성을 담아야 한다.

호랑이는 사냥하면서 8일 동안 사냥감을 기다리고, 토끼를 사냥할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숨 가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마련할 때가 된 듯하다. 2010년 경인년, 백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지금은 충남도의 문화정책도 호랑이의 기세로 날아오를 때이다.